



Raonatti  
지구마을 방범대  
월별보고

November

# CONTENTS

01.  
정기회의

02.  
동대문 종합시장  
자재 구입

03.  
원데이클래스  
진행 3회

04.  
기부 생리대  
제작

## 정기회의 및 원데이클래스 준비 (11/03)



- 1) 정기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프로젝트 계획안 작성
- 2) 정기회의를 거쳐 원데이 클래스를 위한 물품 구입, 장소 섭외 등을 진행

## 동대문 종합시장 자재 구입(11/2, 11/8, 11/2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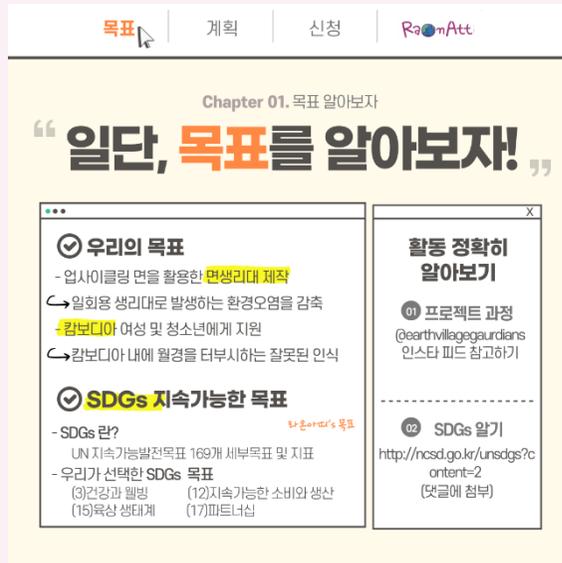
- 1) 원데이클래스 강사님과의 상의 후 필요한 원단 (마, 융, 워싱광목, 겉감) 구입
- 2) 원데이클래스 진행하면서 더 필요한 자재 구입

## 원데이클래스 준비-광명(11/10)

광명에 가서 전문가로부터 면생리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직접 제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



#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시작(11/12~)



1)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우리의 사업을 설명하는 카드뉴스 제작 후 인스타 업로드

2) 원데이클래스 홍보를 위해 각 대학교(서울시립대, 국민대, 한국외대), 기숙사, 대학생 환경단체 등에 홍보글 업로드

# 원데이클래스 진행 1회 (11/1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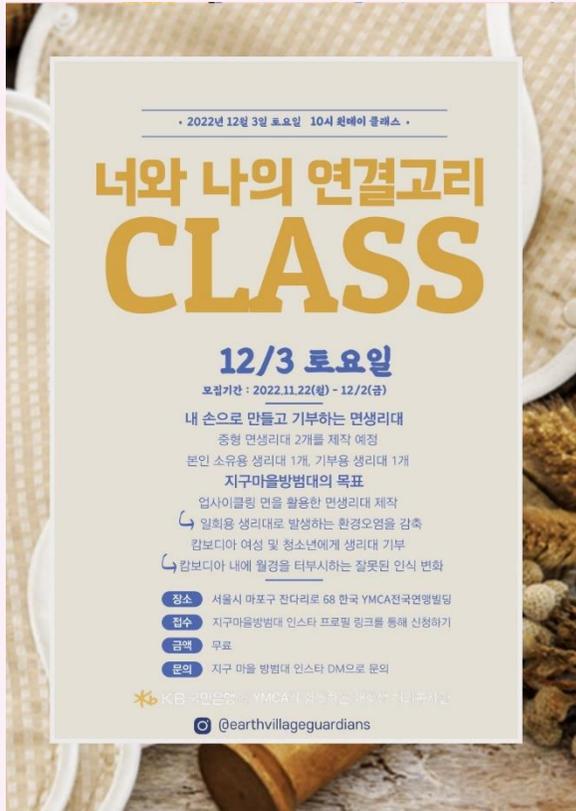
첫번째 원데이클래스 진행!  
대학생 환경 운동가, 대학생 커플, 부부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☺

## 원데이클래스 진행 2회 (11/26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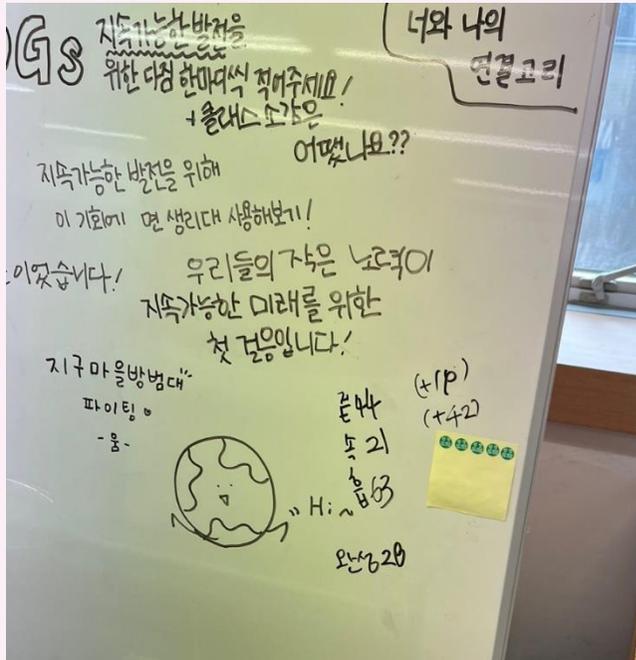
두번째 원데이클래스도 진행하였습니다!  
맘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참여해주신 분께서는 저희의 기부취지를 위해  
추가로 면생리대 10개를 더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😊

# 원데이클래스 진행 3회 (12/3)



마지막 원데이클래스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!

## 기부 면생리대 제작 현황(11월)



**캄보디아에 기부할 생리대 목표: 100개**

현황 개수

완성된 개수: 28+ 12(속지만 넣으면 되는 것들)=40개 완성

겉감: 44개 제작, 속지: 21개 제작, 흡수지: 60개 제작

(남은 것: 겉감 16개, 속지 39개)

## 11월 활동보고 소감

한주은

전까지는 계획하는 단계였다면 이번달은 실제로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면서 뜻깊었던 한달을 보낸 것 같다. 다만, 예상보다 참여가 더더 준비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. 원데이 클래스를 잘 마무리 한만큼, 기부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다. 또한 캄보디아와 교류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. 다음 달도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

권혁민

저번달에는 팀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 미안했는데 이번달에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. 프로젝트중 가장 큰 파트인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하면서 홍보의 중요성이라든가 미씽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제 이것을 우리 목표량 맞춰 제작하고 이것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일만 남았다. 남은 기간동안의 활동도 파이팅!

## 11월 활동보고 소감

홍수현

이번 달엔 세 번의 원데이클래스를 개최했다. 다 같이 모여 배치도 고민하고 필요한 자재나 소품들도 날랐던 기억이 난다. 우리와 뜻을 함께하러 먼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놀라웠다. 우리 프로젝트의 취지인 한국과 캄보디아의 연결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. 이제 12월과 1월은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만든 생리대를 직접 캄보디아에 기부를 하게 된다. 이 프로젝트의 마무리가 성공적이었으면 한다

홍지영

원데이 클래스 3회를 모두 끝내고 난 뒤에는 후련함도 들었지만 홍보가 더 잘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다. 하지만, 그럼에도 생리대 제작활동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. 이제 원데이클래스까지 다 끝났으니, 우리가 할 일은 캄보디아에 보낼 기부 키트를 제작하는 일 뿐이다. 어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!

전은아

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원데이클래스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쳐서 안도의 한숨과 뿌듯함이 같이 나왔다. 부족하지만, 최선을 다 해서 준비를 하고 11월은 그 모든 노력의 과정이 실현되는 시간이었다. 12월을 거쳐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로 까지 향하고싶다!